

내외 소식

신학 연구원 교수진 소개

	성명	직책	경력	교회 직책
1.	이호남	원장	전 대학 교수	서울 스테이크 부장
2.	서희철	부원장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서울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3.	박병규	교수	전남 대학교 대학원	호남 지방부장
4.	김차봉	"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서울 와드 감독
5.	도길회	"	신학 연구원 교수	영남 지방부 선교부장
6.	김종균	"	공주 사대 교수	서울 스테이크 축복사
7.	이광우	"	충남 대학교 대학원	동대전 지부장
8.	L. Edward Brown	"	교육학 박사	한국 선교부장
9.	김창선	"	전 서울대 교수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10.	최육환	"	연세 대학교 교수(박사)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
11.	김종열	교수	연세 대학교 교수(박사)	제3와드 감독

교수진 사진 소개

1



2



3



4



5



6



7



틸 선교부장 취임

선교부장으로서는 3년 임기를 마치고 귀환하게 되는 브라운 선교부장의 후임으로 한국에서 선교사를 지낸 바 있는 유진 피 틸 형제가 지난 7월 10일 오후 12시 40분 서북 항공기 편으로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부인 틸 자매와 세 자녀와 함께 입국한 틸 신임 선

교부장은 선교부 및 스테이크 역원을 비롯한 60여 성도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공항에서 가진 간단한 의식에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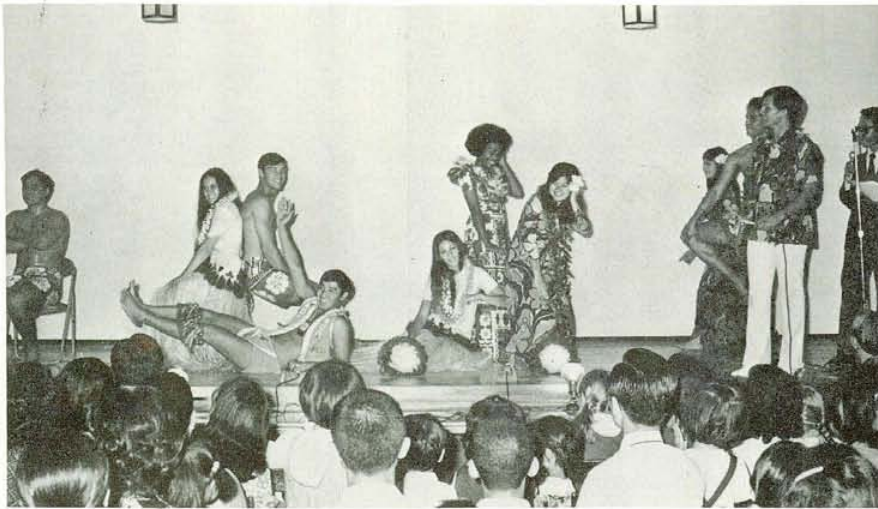
틸 선교부장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당시 브라운 선임 선교부장과 동반자로 봉사한 바 있다.



쇼케이스 하와이 내한 공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브리감영 대학 하와이 분교 연예단인 쇼케이스 하와이 단원 일행 15명이 미국무성의 후원으로 극동 지역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첫번째 공연 여행을 떠나 6월 18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한 미군을 찾아 공연을 하였으며 지난 27일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스테이크의 주선으로 서울 제4와드 강당에서 한국인을 위한 공연을 갖었다. 1000여명의 성도들과 일반인들에게 선 보인 이날의 공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하와

이 민속춤을 인사로 막을 올린 이날의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말만듣던 하와이 훌라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탁월한 음악성을 지닌 이들의 경쾌하고 명랑한 노래, 한국 민요와 찬송가, 4중창, 옛 사랑의 노래 모음곡 등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모아인의 불칼춤,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정의 밤 오페렛타 등 모두 말일성도의 생활에 익었던 소재로 공연하는 사람이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다. 단원 중에는 미국 여러 주의 미인 대회에서 선발된 바 있는 미인과, 하와이에서 텔레비전 고정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인기 연예인, 하와이 5-0수사대라는 드라마의 탈렌트, 언어학자, 브로드웨이 연극 카메롯의 여주인공 등 다채로운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1974년 5월 17일 지역 소식

하와이 라이에—4월 13일 거행된 하와이 교회 대학의 졸업식에서 동교가 브리감 영 대학교의 분교가 된다고 발표되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로 변경된 명칭은 1974년 9월 1일부터 사용된다. 브리감 영 대학 본교는 유타주 프로보시에 있다.

동 분교의 새로운 역할과 단 더블류 앤더슨 학장의 취임이 교회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교회 교육 책임자인 닐 에이맥

스웰 장로를 대신하여 케네스 에이치 베즈리 박사가 교육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앤더슨 박사의 학장 취임을 발표했다. 앤더슨 학장은 1973년 초부터 동 대학의 인문계 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새로운 변동에 따라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인 달린 에이치 오웬스 박사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1,000 명의 학생을 거느리고 학장으로 재직해 온 스티븐 엘 브로우어 박사는 교회의 교육 기구나 그 밖의 여러 직책을 맡을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베즈리 박사가 덧붙였다.

베즈리 박사는 학교의 위치가 변동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와이 교회 대학의 역할이 새로이 검토되었고 분명해졌으며 특별히 외국인의 교육이 강조되었고 교수진과 기타 시설 및 자원의 상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하와이 분교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브리감 영 대학교의 자원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웬스 박사는 교육 위원회가 하와이 대학을 브리감 영 대학교의 분교로 받아 들인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